

안방극장 최고 '흠수저 똑순이' 는?

강소라·정소민·신혜선·채수빈

다양한 '잡초 인생' 열연해 눈길

결말 제각각이지만 공감대 형성



사진 왼쪽부터 신혜선·채수빈·강소라·정소민

강소라, 정소민, 신혜선, 채수빈의 공통점은? 답은 드라마 속 '흠수저 똑순이'라는 것이다. 드라마가 잇따라 '흠수저 똑순이' 여주인공을 내세워 '헬조선'의 풍경을 조명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잔순이'라는 표현만으로도 족했을 캐릭터인데, 이제는 '잔순이'만으로 설명이 안된다. 고학력이다. 똑똑하고 영리하다. 그럼에도 '흠수저'에 발목이 잡혀 살아야 한다. 그러한 '흠수저 똑순이'들이 500원도 아끼며 살아가는 모습이 화면을 채운다. 드라마의 결말은 제각각이다. 신데렐라 판타지도 있고, 꾀스한 자력 경쟁기도 있다. 시청자들은 결말에 대한 궁금증으로 여주인공에 감정을 이입해 드라마를 따라간다.

◇ 정소민 - 월세 5만원 아끼려 결혼한 여자
정소민은 월세 5만원을 아끼고자 계약 결혼을 한 인물을 연기하고 있다. tvN 월화극 '이별 생은 처음이라'의 여주인공 윤지호.

윤지호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의 작가 지망생이다. 하지만 현재는 백수다. 드라마 작가가 되고자 온갖 더러운 꼴 다 참아가며 보조작가로 버텨지만, 결국은 드라마 PD의 성폭행 미수가 결정타가 돼 "드라마 안 쓰겠다"고 집 싸들고 나왔다. 돈이 없는 그는 월세 30만원을 내면서 '하우스 셰어'를 하며 살았지만, 보조작가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져 '계약 결혼'을 감행했다. 고정적인 월세와 집안 관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 집주인(이민기 분)과 뜻이 맞아 동거를 위한 가짜 결혼을 감행한 것. 이 결혼으로 윤지호가 얻은 이익은 월세 5만원이 깎인 것이고, 편장은 집에 산 가격으로 살게 된 것이다.

다분히 드라마적인 설정에 코믹한 구성이지만, 이 비싼 서울 땅에서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공간이 없는 수많은 '흠수저'들에게는 격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 신혜선 - 2년간 열정페이 바쳤지만 금수저에 밀린 여자
신혜선은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흠수저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을 맡았다.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의 여주인공 서지안. 서지안은 정규직 임사를 위해서라면 상사의 팬티까지 빨아줄 기세로 온몸을 바쳐 2년간 계약직으로 일했고, 모두가 성

적 1등으로 그가 정규직이 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막판에 낙하산 금수저에게 가볍게 정규직 채용 자리를 빼앗겼다. 2년간 밤낮없이 일하면서 상사 아들의 준비물을 위해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상사의 차를 대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손해배상금까지 내야 했지만 참았다.

평생 공부를 잘했고, 노력했고, 입사해서도 근면성실했지만 낙하산 금수저에게 밀리는 데는 몇분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정규직 입사에 실패한 후 곧바로 동네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이런 서지안의 처지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 흠수저들의 공감을 얻는다.

드라마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재벌가 딸로 둔갑하는 이야기를 그렸지만, 금세 자신의 정체를 알아버린 서지안은 더 큰 지옥 속에 빠진 상태다.

◇ 강소라 - 고학력의 생계형 프리터족
강소라는 생계형 프리터족(특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젊은층을 일컫는 일본식 조어)을 연기 중이다. tvN 주말극 '변혁의 사랑'의 여주인공 백준. 고학력에 고스펙을 자랑하지만 취직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프리터족을 택한 인물이다. 반듯한 대학 나왔고, 조건도 재능도 하나 빠지지 않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각고의 노력으로 스펙을 쌓아서 대기업 단기 인턴을 했으나, 더 이상의 스펙쌓기는 무의미하다 판단하고 그때부터 생계형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스펙을 위해 돈을 쓰느니 그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이다. 건강주스 배달, 피로연 서빙, 공사장 일용직, 호텔 메이트 등 닥치는 대로 24시간을 쫓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간다. 워든 똑부러지게 해내니 여기저기서 일을 맡기려고 한다. 언제나 밝고 당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은 늘 없다. 옥탑방 신세에, 엄마와 가족은 늘 돈을 부탁한다. 엄마가 다급하게 1천만원을 부탁해

서 적금을 꺼려 은행에 갔는데 겨우 300만원 뿐이다. 아무리 열등감이 없다고 해도 백준의 씩씩한 삶에 부족한 희망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 채수빈 - 1억 모아 헬조선 뜨겠다는 여자
채수빈도 24시간을 쫓아 일하는, 생활력 강한 흠수저를 연기했다. 지난달 23일 끝난 KBS 2TV '최강 배달꾼'의 여주인공 이단아. 낮에는 중국집 배달부로, 남자들도 힘든 오토바이를 꼭에 운전하며 여기저기 배달을 다녔고 새벽에는 영어학원을 청소했다.

이단아의 목표는 1억원을 모아서 헬조선을 뜨는 것. 이를 위해 영어를 부지런히 공부했고, 하루빨리 희망 없는 한국을 떠 미국으로 갈 날만 꿈꿔오던 이 단아는 돈을 모았다. 입는 데도, 꾸미는 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돈을 모아 '성공의 땅'으로 가는 게 목표였다. 미국에 가면 흠수저라 차별받지 않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드라마는 그가 헬조선을 못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자력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막을 내렸다. 영리한 똑순이 이단아가 사랑도 일도 쟁취하는 것을 보여주며 희망을 안겨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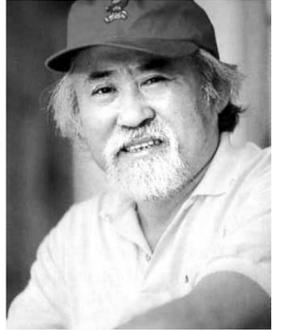
◇ 박하선 - 반지하 자취방에 사는 학원 강사
모두가 공무원이 되겠다는 시대, 박하선은 공무원 학원계의 초보 국어 강사를 연기했다. 지난해 10월 막을 내린 tvN '혼술남녀'의 여주인공 박하나.

남들이 보기에는 반듯한 직장인이 있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무한 경쟁 학원가에서 수강생 수에 발목이 잡혀 살아가는 파리 목숨의 처량한 신세다. 반지하 자취방에서 캔맥주와 과자로 스트레스를 풀며 흑시라도 학원에서 잘릴까 봐 손꼽는다. 수강생 없다고 온갖 구박과 멸시를 받지만 박하나는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생존의지로 버텨나갔다. 결국 학원이 작은 강사이자 안하무인이었던 진정석(허서진)을 변화시키고 그와 연인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사극 대가' 작가 임충 별세

'대왕의 길' 등 100여편 집필

지난해부터 폐암 투병 악화



1세대 사극 작가 임충(본명 임충희·사진) 씨가 28일 오전 11시 20분께 별세했다. 향년 79세.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해 4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눈을 감았다. 고인은 1세대 사극 작가로, 국내 사극 드라마 대표작들을 집필했다.

1938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난 고인은 1962년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에 연출부 수련생으로 입사해 의상소품실에서 일하며 사극 제작의 세계에 입문했다. 이후 1964년 영화 '종이배의 연정'으로 시나리오 작가 데뷔했고 '이름 모를 소녀' '사하린의 하늘과 땅' '오계' '아스팔트 위의 여자' 등의 시나리오를 썼다.

1978년 KBS '전우'의 최종회로 드라마 집필을 시작한 고인은 KBS '전설의 고향'의 대표 작가로서 150여 편을 쓰면서 입지를 굳혔다. 이후 '여인열전 장희빈' '사모곡' '하늘아 하늘아' '몽실 언니' '일출봉' '야망' '만강' '미망' '대

왕의 길' 등을 집필하며 국내 사극 드라마의 인기를 견인했다. 마지막 작품은 2001년 '홍국영'이다.

이후에도 고인은 후배 작가 양성과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활동했으나 폐암 투병으로 일손을 놓게 됐다. 지난해에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예술상 보관문화훈장을 받았으나 투병 중인 까닭에 아들인 배우 임호가 대리 수상했다.

대중상 각본상, 한국방송작가상, KBS 방송대상 특별상, MBC 방송대상 특별상, 백상예술대상 TV극본상 등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나영석 PD '알쓸신잡' 시즌 2 출발 순조

첫회 시청률 6.6%

새로운 멤버가 새로운 재미와 함께 찾아왔다.

나영석 PD의 신작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알쓸신잡) 시즌2가 첫회에서 6.6%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청자의 기대를 반영했다.

tvN은 28일 밤 9시50분 첫선을 보인 '알쓸신잡2'의 시청률이 평균 6.6%(닐슨 유료 플랫폼), 순간 최고 8.6%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즌1의 첫회 성적을 앞서는 것이다. 지난 6~7월 방송된 '알쓸신잡' 시즌1의 첫회 시청률은 5.4%였다. 시즌1의

자체 최고 시청률은 7.2%였으며, 6.1%로 종영했다.

시즌2에서는 김영하·정재승 대신 건축가 유원준과 뇌과학자 장동선이 새로운 멤버로 합류해 유시민 작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MC 유희열과 경북 안동으로 여행을 떠났다. 28일 밤 10시대 시청률 1위는 SBS TV '정글의 법칙 in(in) 신들의 정원'이 지켰다. 시청률은 8.7%-12.1%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MBC TV '보그맘'은 3.8%-4.1%, KBS 2TV 'VJ특공대'는 4.5%로 나타났다.

밤 11시대 드라마 경쟁에서는 KBS 2TV '고백부부'가 5.5%, JTBC '더 패키지'가 1.61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20세기 소년소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재) 50 UHD 한식	50 마녀의 법정 (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문화사색 5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00 SBS 12뉴스 50 지식 총조민 55 KBC 특집토론회 천년의 맛 김치산업의 미래는?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이카데미	50 특선다큐 조애나 럼리의 일본기행	3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재)	5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05 사이닝스타 35 텔레몬스터 40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간다큐, 사람(재) 50 팔도발상 스페셜(재)	20 TV 유지원 50 여유만만	1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공간다큐, 사람 (재)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상앨범산 (재) 30 VJ 특공대 (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별별머느리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20 2017 프라야구 한국시리즈 5차전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20세기 소년 소녀	00 사랑의 온도
11	10 월요기획	10 대한민국 토크쇼 인생하세요	10 빅 히스토리 마한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20 이웃집 찰스 (재)	35 영상앨범산	10 빛날 스페셜 25 국제상 수상작 베스트 미래인간 AI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신문 아틀라스 <칼의 역사 1부 2600년의 역사, 용천보검>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시지 김치찌개, 고구마조림)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마스터 06:00 엄마 깨주리	20:50 세계테마기행 (내 인생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 바이킹이 숨겨둔 매혹의 땅)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쿵	21:30 한국기행 (가을 방도독을 잡아라 - 가을 인생을 찾아서)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07:00 허풍선이 과학쇼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21:50 EBS 다큐프라임 (비밀의 땅, 파미르)세계의 지붕
07:30 로보카 폴리	12:40 평등채널(재)	17:15 로보카 폴리	22:45 엄마를 찾자마
07:45 출동! 슈퍼월드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35 까칠남녀
08:00 덩동덩 유치원 1~2	13:00 엄마를 찾자마(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30 플라워링 하트	14:30 레이디 버그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둔키호테)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레이디 버그	19:00 로보 발명왕 러스티	24:30 세계의 드라마
09:00 몬카트	15:00 우주탐험가 젯	19:30 EBS 뉴스	
09:15 소피 루비		19:55 다문화 교부 열린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9월 11일 庚寅)

子	48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으니 몸을 낮춰 지혜를 구하라. 60년생 치밀함이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풀리리라. 72년생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이다. 84년생 조용한 가운데에 무리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1, 89	午	42년생 상호 협조하는 것이 좋다. 54년생 시대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 66년생 긴 기류 끝에 단비가 내린다. 78년생 피하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라. 90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91, 51
丑	49년생 지금 활용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르렀다. 61년생 차체를 확실하게 청산하는 것이 길조를 부른다. 73년생 듣는 이가 많아서 유리한 국면을 잡게 되리라. 85년생 맹점을 부리지 말라. 91년생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2, 30	未	43년생 까다로운 것이니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 55년생 자기당 처해지지 않도록 하자. 67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만 하라. 79년생 파격적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 91년생 처음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8, 74
寅	50년생 경험의 참작과 전문성이 옳은 판단으로 이끈다. 62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되어 가리라. 74년생 성사의 기미를 띠고 있는 판세이다. 86년생 일단 수용하고 나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다. 행운의 숫자 : 00, 95	申	44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니라. 56년생 실행의 방법을 한번쯤 전환해 보는 것도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68년생 변종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80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행운의 숫자 : 46, 08
卯	51년생 과실이 출렁출렁 열려 있으니 풍요로운 것이다. 63년생 소신껏 판단하면 후회하지 않으리라. 75년생 사소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을 알라. 87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22, 16	酉	45년생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57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69년생 범위가 넓어지거나 나는 위치로 조정될 수도 있다. 81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행운의 숫자 : 39, 40
辰	52년생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다. 64년생 뜻밖의 것을 얻을 수 있는 행운이 따라리다. 76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으니 빈틈을 보여주는 어니 되느니라. 88년생 국면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6, 82	戌	46년생 평상시 정성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58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다. 70년생 망설이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이다. 82년생 조처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4, 59
巳	53년생 시련은 얕한 결실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65년생 과정에 충실하면 결실을 맺는다. 77년생 흥이 변해 갈래지니 뜻대로 되리라. 89년생 표리가 일치하니 참됨이 상서로운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0, 18	亥	47년생 암중모색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이다. 59년생 절대로 수수방관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71년생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한다. 83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1, 8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